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차이

이 창 식 · 김 용 미 · 박 미 자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Permissive Levels of Dating Among Youth

Lee, Chang Seek · Kim, Yong Mi · Park, Mi Ja
360 Daegok-ri, Haemi-myun, Seosan city,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youth and their parents about having permission to date. Opinions on youth dating permission was gathered from 150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r adolesc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opinion about youth dating permission depending on gender, age, scholastic record, and birth order, but for parents, the difference related to the gender and age of adolescents. Second, the result indicated that adolescents had a greater acceptance of dating permission than their parents, expressing a generational difference. Third, where the scholastic record of subjects was low, where subjects were non-eldest siblings, and where the parents' level of youth dating permission was high, the level of youth dating permission was higher. A main predictor of youth's level of dating permission was the level of the parents about youth dating.

Key words: youth, level of dating permission, generational difference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이성간의 관계를 조장하는 전통적인 수단인 이성교제(데이트)라는 제도이다. 이성교제는 이성과의 상호작용을 학습할 구조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는 반면 두 이성간의 관계에서 피상성, 진실의 결핍, 부정직과 경쟁을 조장하는 등의 역기능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

다. 즉, 좋은 상황에서의 이성교제는 사회적이고 대화적인 기술, 매력,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밝고 관심있는 태도를 갖추는 능력, 심각한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나쁜 상황에서의 이성교제는 데이트 폭력,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적응 등 역기능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한편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신체가 발달하면서

접수일: 2006년 10월 24일 채택일: 2006년 11월 28일

Corresponding Author: Kim, Yong Mi Tel: 016-807-0490 Fax: 82-41-660-2743

E-mail: kym3ds@hanmail.net

신장과 체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성적 성숙이 가장 현저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때 청소년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몽정과 초경을 경험한다. 이 무렵부터 청소년들은 동성보다 이성에 대해 새로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이성을 사귀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며,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자신감, 관계를 맺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청소년의 특성으로 이성친구와 사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김은영 등 2003).

그러나 성(sexuality)은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윤리적, 정치적 등 다양한 속성(오생근·윤혜준 1998)을 갖고 있어 대상이나 시대, 다양한 상황에 따라 편견이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성을 반영하는 이성교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모세대와 청소년 자녀세대간 찬성과 반대의 경향이나 이를 허용하는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현 청소년의 부모세대는 과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전통과 윤리관에 지배되어 성을 사회통념상 금기 사항으로 여겼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 왔을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주변 성인들에 의해 규제되는 일이 많았던(김원중 2003) 시대에 살던 세대들이라 이성교제에 관한 허용수준에서도 지금의 청소년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청소년들은 서구사회의 성 개방 풍조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와 아직 올바른 이성교제와 성의식, 성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박진만 2005) 상대적으로 성 가치관이 안정적인 부모세대와는 자녀의 이성교제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반면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와 부모들의 이성관과 성의식이 학생과 자녀들의 이성관과 성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이성열 2005), 성 가치관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김주희 2003; 김현숙 1999; 박희성 등 1995; 이상문 1995).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허용수준은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간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변인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성교제와 관련된 연구 즉, 이성교제와 성행동(윤경자 2002), 이성교제 실태 조사(이영숙 등 1997) 등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성교제 허용수준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간 차이를 연구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허용 수준이 청소년 및 부모의 특성, 그리고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 수준을 예측하는 청소년과 부모변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기 건전한 이성교제는 물론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은 청소년세대와 과 부모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셋째,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과 부모세대 예측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이성교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인격의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사랑의 본질과 기쁨을 알게 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성교제의 기능은 이성간에 서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성교제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며, 청년기의 사회화의 과정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예의 범절을 익히며, 사회적 기술을 터득할 뿐만 아니라 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기여한다(Paul & White 1990).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이성교제의 여러 기능 가운데 오락적 기능이나

배우자 선택의 기능은 높으나 보다 중요한 사회화의 기능이나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 자신의 인격형성 기능 등은 덜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재림 등 200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정도는 고등학교 남학생 경우 88.3%, 여학생 84.3%가 이성교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영숙 등 1997), 김의영(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90.4%, 여학생 91.8%가 이성교제를 원하고, 박은영(1999)의 연구에서도 남자고등학생 96.6%, 여자고등학생 94.4%가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친구 유무를 보면 부산시내 중고생 중 남학생 19.2%, 여학생 10.7%는 실제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계화 1998), 광명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1.8%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고애자 1990).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중고 남학생의 56.4%와 여학생 34.4%가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2).

한편 이성교제 경험은 중고생의 경우 남학생 66.7%, 여학생 53.2%로 나타났고(김영희 1992), 박은주(1993)의 연구에서는 남녀 평균 63.3%로 나타나 이미 이성교제 경험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허용은 청소년과 부모간 다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이성교제를 40% 이상이 찬성하는 한편 여학생의 경우 25.6%가 찬성하였으며, 반대로 남학생 자녀의 부모는 20.8%가 반대하나 여학생의 부모는 41.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이순열(199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64%-84%까지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고등학생의 97.4%가 허용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허용 정도를 나타냈다. 김영희(1992)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45.5%이고, 그 중 남학생(56.4%)이 여학생(34.4%)보다 많았다. 이성친구를 사귀는 경험에 있어서는 전체의 59.9%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경우에는 남학생(66.7%)이 여학생(53.2%)보다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허용 수준을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시도하였다. 즉, 이성교제 허용수준을 이성과 식사를 같이 하기, MT 같이 가기, 이성친구의 집 방문하기, 극장 같이 가기, 노래방 같이 가기의 5개 이성교제 행동에 대한 허용 수준을 측정할 것이다.

2. 세대차이

세대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한 Mannheim(1952)은 경험성 총화가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청소년기 경험이 한 개인의 의식형성에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문제에 대한 연구 관심은 첫째, 세대 간 차이의 탐색으로 서로 다른 세대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고, 둘째, 특정 세대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어느 특정 세대가 어떤 특성을 가지며, 그러한 세대 특성이 무엇에 연유하며 세대 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세대 차이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학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2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어른과 청소년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 또는 견해 차이를 일컫고, 둘째는 이 결과로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세대차이란 부모와 청소년간 두 세대간 차이를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청소년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를 포함하는 중년세대를 경험에 기초하여 조심스럽고, 현재보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비교하는 과거지향적이며, 인생이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거나 현실적이고 인습, 관례, 도덕, 윤리 규범 등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대체로 현상에 집착하여 현상에 대해 만족하고 흡족해 하고 있으며, 나이를 먹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중년세대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는 청소년 세대를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는 대담성이 있고, 매사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낙관적이며, 새로운 사상이나 생활양식을 가지고 시험하려 하여 전통적인 규칙, 윤리 같은 것에 도전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도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와의 갈등은 대체로 14~15세경에 가장 높고, 남자의 경우 여자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와의 갈등은 16세경에 가장 높다(Floyd & South 1972).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사실은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치문제, 도덕성, 정치적 신념 등은 매우 긍정적인 반면 복장, 귀가시간, 여가활동, 이성관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Douvan & Adelson 1966).

세대차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가 좋다고 할지라도 불가피하고 청년초기에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증가한다. 즉,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 논리적 추론과 같은 인지적 변화, 독립과 정체감을 수반하는 사회적 변화 등이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과 부모의 차이와 갈등의 근원을 청년기 자녀의 발달상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으나 최근 부모 쪽의 신체, 인지, 사회적 변화 또한 청년과 부모간의 갈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남·녀 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생들에게 학생용 160부와 부모용 160부를 배부하고 그 학생을 통해 부모용 설문지도 회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편의표집을 하였다. 즉 남자 고등학생과 아버지용 40부, 남자고등학생과 어머니용 40부, 여자고등학생과 아버지용 40부, 여자고등학생과 어머니용 40부를 배부하였다. 총 155 쌍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5쌍의 설문지는 자료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50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남자 고등학생 74명, 여자고등학생 76명, 아버지 69명, 어머니 8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은 남자 고등학생이 49.3% 여자 고등학생이 50.7%로 남녀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이다. 연령은 16, 17, 18세로 16세가 가장 많고 다음이 18, 17세 순이다. 고등학생들의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61.7%로 절반을 넘었으며 그 다음이 상, 하의 순이다.

청소년들의 부모는 아버지가 45.1%, 어머니가 54.9%로 어머니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온 경우가 대략 10%정도 더 많다.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82.9%로 가장 많으며 평균 연령은 45세이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56.9%로 가장 많고 대졸과 중졸이 비슷한 수치를 이룬다. 가정소득은 평균 262만원이며 부모의 결혼상태는 기혼이 95.4%로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한 부모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도구

이성교제의 허용수준은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의 청소년 이성교제 행동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수준을 의미한다.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 수준 도구는 김윤정 등(2005)과 최동규(1990)의 문헌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식사를 같이 하기, MT 같이 가기, 이성친구의 집 방문하기, 극장을 같이 가기, 노래방을 같이 가기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상관관계수(r)는 청소년의 경우 .1-.5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부모의 경우 .1-.45의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용 허용수준은 평균 최대 4.33($SD=.857$)에서 최소 3.05($SD=1.107$)로 나타났다. 부모의 허용수준은 평균 최대 3.54($SD=1.001$)에서 최소값 2.21($SD=1.162$)로 나타났다.

측정은 절대반대(1점)에서부터 적극허용(5점)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경우 본인의 자녀에 대한 허용수준을 물어봤으며 자녀의 성별과는 구분을 두지 않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허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3, 부모의 허용수준 Cronbach's α 는 .85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자료는 Window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과 부모의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적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 수준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허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즉 18세와 19세가 허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세는 상대적으로 허용 수준이 낮았다. 성적에 따라서는 학교 성적이 가장 낮은 청소년이 이성교제 허용수준 평균이 3.82점으로 가장 높아 학교 성적 중상의 집단보다 이성교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였다. 형제 순위에 따라서는 맏이보다는 둘째 이하가 이성교제 허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부모들의 청소년 자녀 이성교제 허용 수준은 부모 자신의 특성보다도 자녀의 특성에 따라 이성교제 허용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청소년 자녀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청소년 자녀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자녀에 대하여 여자자녀보다 허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18세, 17세, 16세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

Table 1. Levels of youth dating permission by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N	M	SD	t/F	Duncan
Sex	Male	74	4.02	.805	4.02***	
	Female	76	3.51	.773		
Age	16 years old	56	3.49	.815	5.47*	A
	17 years old	41	3.81	.766		B
	18 years old	52	3.99	.820		B
	Total	149	3.76	.827		
Religion	Christian and Catholic	53	3.72	.796	.434	
	Buddhism	26	3.90	.883		
	No religion and Others	71	3.74	.837		
	Total	150	3.76	.828		
Scholastic record	High	31	3.40	1.047	3.61*	A
	Middle	92	3.85	.723		B
	Low	26	3.82	.822		B
	Total	149	3.76	.829		
Order of sibling	First	79	3.54	.861	-3.657***	
	Below second	71	4.01	.714		

* p <.05* , *** p <.001

Table 2. Levels of parents of youth dating permission by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N	M	SD	t/F	Duncan
Sex	Male	74	3.35	.837	7.08***	
	Female	76	2.40	.806		
Age	16 years old	56	2.44	.823	15.33***	A
	17 years old	41	2.87	.997		B
	18 years old	52	3.36	.804		C
	Total	149	2.88	.948		
Religion	Christian and Catholic	51	2.88	.881	.580	
	Buddhism	26	3.04	.991		
	No religion and Others	73	2.81	.982		
	Total	150	2.87	.948		
Scholastic record	High	30	2.71	1.055	.65	
	Middle	93	2.92	.903		
	Low	26	2.80	.925		
	Total	149	2.86	.937		
Order of sibling	First	81	2.85	.944	-.281	
	Below second	69	2.90	.958		

*** p <.001

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종교, 학교성적, 형제순위에 따라서는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차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 자신들의 이성교제 허용 수준은 평균 3.75점인데 반하여 그들의 부모들은 2.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보다는 이성교제 행동을 보다 더 높

Table 3. Differences between youth and their parents in levels of youth dating permission

	N	M	SD	t-value
Youth	150	3.75	.833	-10.950***
Parent	150	2.85	.936	

*** p <.001

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전체 5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성친구와 식사를 같이 하기”, “MT를 같이 가기”, “이성친구의 집 방문하기”, “극장에 같이 가기”, “노래방 같이 가기” 의

Table 4. Items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youth and their parents permission in levels of youth dating

		M	SD	t-value
Eat with the opposite sex	Youth	4.32	.860	8.418***
	Parent	3.52	1.002	
Go on a MT with the opposite sex	Youth	3.32	1.116	10.589***
	Parent	2.18	1.139	
Visit the opposite sex' home	Youth	3.05	1.026	2.321*
	Parent	2.79	1.309	
Go to movie theater with the opposite sex	Youth	4.15	1.006	11.418***
	Parent	2.97	1.203	
Go to the music hall with the opposite sex	Youth	3.90	1.085	9.702***
	Parent	2.78	1.223	

* p <.05*, *** p <.001

5문항에서 청소년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였다 (Table 4).

3.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변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변인은 성별, 성적, 형제순위, 연령을 투입하였으며, 부모변인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이성교제허용수준과 부모 연령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량은 28.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변인은 성적, 형제순위가 유의미하였으며, 부모변인에서는 이성교제 허용수준이 유의하였다. 즉, 성적이 낮을수록, 맏이가 아닐수록, 부모의 이성교제 허용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부모의 이성교제 허용 수준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 수준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다(Table 5).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generational variables affecting levels of youth dating permission

		Levels of youth dating permission	
		B	Beta
	Sex(M=1)	.292	.176
		-.365	-.175*
Youth variables	Scholastic record(High=1)		
	Order of Sibling(First=1)	-.472	-.283***
	Age	-.071	-.072
Parent variables	Levels of youth dating permission	.278	.305***
	Parent's age	.005	.028
F		6.470**	
R ²		.282	

* p <.05*, **p<.01, *** p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150쌍을 대상으로 첫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차이를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과 부모세대 예측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로 비교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청소년이 허용하는 이성교제와 부모가 허용하는 이성교제가 성별에 따라 허용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도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수현(1995)의 “이성교제를 통한 학교 생활태도 관계분석”에도 남학생들의 이성교제를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계화(1998)와 김영희(1992), 그리고 한국청소년개발원(1995)의 결과와도 같다. 연령에 따라서도 부모와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허용하는 이성교제 수준과 부모가 허용하는 이성교제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적극적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태근(1997)의 연구와 일관성이 있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은 성적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모들은 성적과 이성교제 허용수준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청소년들은 성적이 낮을수록 적극적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수현(1995)의 연구에서도 성적이 낮을수록 적극적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같았다. 형제순위에 따른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있어 청소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부모들은 형제 순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순위(birth order)에 따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첫째 아이는 집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부모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고, 동생에 대해서도 동정적이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종교에 따라서는 청소년이나 부모 둘 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세대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과 부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은 자신들의 이성교제 허용 수준에 대해 평균 3.75점인데 반하여 그들의 부모들은 2.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 보다는 이성교제 행동을 보다 더 높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5문항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전체 5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성친구와 식사를 같이 하기”, “MT를 같이 가기”, “이성친구의 집 방문 하기”, “극장에 같이 가기”, “노래방 같이 가기” 모든 문항에서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별에서 부모세대가 낮은 점수를 보여 청소년 이성교제에 있어서 소극적 허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변인은 성별, 성적, 형제순위, 연령을 투입하였으며, 부모변인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 이성교제 허용수준, 연령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변인 중에서는 성별, 성적, 형제순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변인 중에서는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변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이 낮을수록, 형제순위가 맏이가 아닐수록 청소년 이성교제 허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변인 중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에 허용수준에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28.2%였다. 청소년의 변인 중에서는 형제순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부모 변인 중에서는 이성교제 허용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kson(1950)은 부모님의 부부간 친밀감이 이후 자녀의 낭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둔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와의 관계가 내재화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친밀한 연인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 또한 차정화와 전영주(2002)의 연구에서도 근원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남성일수록 교제중인 여성에게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허용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이성교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선경(2001)의 연구에서 성 접촉 경험의 정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 전에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간의 성 접촉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성교제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성과의 접촉 기회가 주어지기 이전부터 자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성 접촉의 상황이 처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허용수준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지에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남·녀 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 150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중학생부터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학생에 대한 이성교제 허용수준을 알아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하겠으며, 이성교제 허용수준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도 이성과 식사를 같이 하기, MT 같이 가기, 이성친구의 집 방문하기, 극장을 같이 가기, 노래방을 같이 가기의 5개 행동에 대한 허용 수준을 측정하였지만 더 심층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애자(1993) 중학교학생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이중(1997) 청소년학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김영희(1992)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원중(2003) 남녀공학·비공학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비교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3(3), 25-36.
 김운정·이창식(2005) 성규범의 세대 차이와 청소년의 성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25-147.

- 김의영(1996) 아동복지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지 5(2), 1-13.
- 김은영·김혜림·서은숙·임경선·최한나(2003)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연예문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Vol1, 86-100.
- 김주희·송은일·강성희(2003)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1), 111-124.
- 김태근(1997)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현숙(1999) 대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2), 339-356.
- 계수연(1999)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00)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1993) 청소년의 성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만(2005) 아동·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와 성의식에 관한 연구. 초당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성·이지숙·박초아·정민자(1995) 미혼 남녀의 성행동실태와 성에 대한 태도. 대학가정학회지 106, 11-23.
- 오성근·윤혜준 (1998) 성과 사회. 서울 : 나눔출판.
- 윤경자(2002)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요인등. 대한가정학회지 40(1), 179-194.
- 이계화(1988) 중·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문(1995)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경(2001)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자기주장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2), 212-228.
- 이성열(2005) 남녀공학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1995) 이성교제를 통한 학교 생활태도 관계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열(1991) 성교육 도서를 활용한 성교육 지도 실천연구. 미간행연구논문.
- 이유정(1995) 고등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이춘화·이정애(1997)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24, 70-77.
- 이재림·옥선하·이경희(2002) 부부관계 요인과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20(4), 149-164.
- 곽금주(1994) 자가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9-135.
-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조성남·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간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 논집 5, 1-20.
- 조순자·신연순(2001)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위기상대에 관한 연구. 공주문화대학 논문집 제27권, 241-268.
- 조아미(200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0-R 65.
- 차정화·전영주(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동규(1990) 청소년의 성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숙(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인식 및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윤여정·류경희(2005) 학대받은 아동의 쉼터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9, 37-73.
- 함종한(1992) 청소년학 원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홍봉선(2000) 청소년 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79-117.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 J. Aronson.
- Douvan E, Adelson J(199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Paul EL, White KM(1990) The development of intimate relationships in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25, 375-400
- Mannheim K(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 276-321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 Oxford. press.
- Floyd H, South DR(1972) Dilemma of youth; The choice of parents or peers as a Frame of Reference for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627-634.
- Kroger J(2003) Identity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In G. Adams, Berzonsky(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Malden, MA : Blackwell.